

| 활동 개요 |

[illegible]



| 활동 내용 및 방법 |

1. 도입(20분)

(1) 계절에 관해 생각하기

[활동상세] 함께 [활동자료 1] ‘모두 자기 모습 찾았다’라는 시를 읽어 본다.

- 학습자들에게 아래의 시를 보여주고 함께 ‘모두 자기 모습 찾았다’라는 시를 읽어 본다. 시를 인쇄하여 나누어 주어도 좋고 PPT로 만들어서 함께 보면서 읽어도 좋다. 이 시에서 지은이는 어떤 점을 보고 봄이 왔다는 것을 느꼈는지 말해 보게 한다. 지은이는 이 시의 제목을 ‘모두 자기 모습 되찾다’라고 붙였다. 이 제목의 의미가 무엇일지 생각하고 발표해 보게 한다.

[활동상세] 학습자들에게 언제 계절이 바뀌거나 왔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지 적고 발표하게 한다. [활동자료 2]를 나누어주고 계절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계절이 왔다고 느끼게 되는지를 적어보게 한다.

- 적은 내용을 차례대로 발표하게 하고, 지도자는 칠판에 그 내용을 겹치지 않도록 적는다. 4계절에 대한 발표가 끝났을 때 학습자들과 함께 각 계절별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계절감을 느끼게 되는지 소리내어 읽어본다.

[유의사항] 계절감에 대한 학습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다소 어긋나는 발표가 있더라도 지적하지 않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도하도록 한다.

[준비물] 가능하다면 계절감을 표현한 동시를 몇 편 더 준비하여 학습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차후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읽어보게 한다.

2. 전개(50분)

(1) 계절 연상 단어 적어보기

[활동상세] 봄부터 겨울까지 4계절의 단어를 들었을 때 연상되는 것들을 5개씩 쓰고 연관성이 있는지 발표하게 한다.

- [활동자료 3]을 나누어주고 봄부터 겨울까지 계절의 이름을 들었을 때 곧바로 떠오르는 단어를 5개까지 적도록 한다. 옆의 짝과 바꾸어서 읽어보고 어떤 점이 겹치고 어떤 점이 다른지를 비교해 보게 한다.
- [활동자료 3]의 아래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보고 그 각각의 연상되는 단어들을 적어 넣은 다음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있는지 표시하게 한다. 또 어떤 점이 연관성이 있는지 생각하여 줄 옆에 메모하게 한다. (예 : 나비와 꽃을 적었다면 나비가 나타나서 꽃을 찾아다녀요.)

(2) 계절이 이상해요.

[활동상세] 날씨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적고, 기상이변이 생기면 생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적어보게 한다.

- [활동자료 4]를 나누어 주고 이번에는 날씨에 이상한 점을 느낀 것이 있는지 적어보게 한다. [예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날씨에 이상현상이 생기면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사람들과 자연에 살고 있는 많은 동식물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도와준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럴 때는 기상이변에 대한 몇 가지 신문기사를 보여준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 생동감 있는 자료를 함께 보여주어도 좋다. 가능하다면 4계절의 날씨를 골고루 보여준다.

3. 마무리(10분)

(1) 마무리 : 생각해 봅시다.

[활동상세] 만약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겨울과 여름이 길어진다면 가정에서의 생활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참고자료 1, 2]를 인용하여 예를 들어 본다.

- 먼저 겨울이 길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는 여름이 길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생각해 봅시다. 날씨가 매우 덥거나 추울 때 나의 하루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발표해 봅시다.
- 너무 덥거나 춥다고 해서 마음대로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거나 난방을 할 수도 없는 곳이 학교이다. 에너지 사용을 많이 늘리지 않으면서 극단적인 날씨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제안해 보자. 가능하다면 학교 전체 차원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건의해 보자.



| 활동자료 |

[활동자료 1] 계절에 관해 생각하기 1

모두 자기 모습 찾았다.

경남 밀양 상동초등학교 6학년 임순옥

봄이 되어
감나무, 모과나무, 복숭아나무에
잎이 나고
자두나무에
꽂알같은 자두가 열리고
매실나무에 매실이 달리니

모두 자기 모습
찾은 것 같다.

2002년 5월 3일



출처 :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엮음, 새들은 시험 안 봐서 좋겠구나, 보리, 2007.

[활동자료 2] 계절에 관해 생각하기 2

난 이럴 때 계절을 느껴요.

_____초등학교 _____학년 _____반 이름 : _____

* 여러분은 언제 ‘봄이 왔구나’라고 느끼나요? 또 언제 여름, 가을, 겨울이 되었다고 느끼나요?

계절	난 이럴 때 ‘이 계절이 왔구나’라고 생각해요.
봄	처음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을 때
여름	
가을	
겨울	



[활동자료 3] 계절과 연상되는 단어 찾기

연상되는 단어를 찾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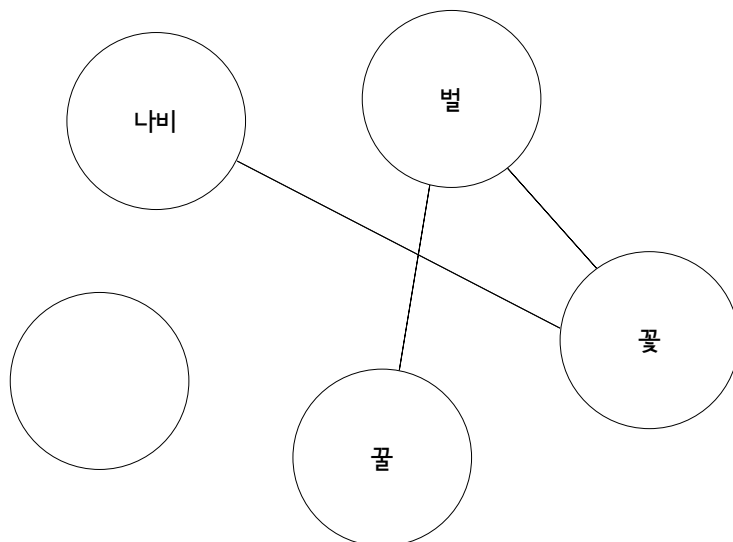
_____ 초등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이름 : _____

* 여러분은 봄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계절	연상되는 단어 5개 적기	나에게 없는 친구의 단어
봄	예 : 나비	
여름		
가을		
겨울		

* 하나의 계절에서 5개의 단어를 골라 아래 동그라미에 써 넣어 봅시다. 그리고 관계가 많은 단어들을 연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예시]



[활동자료 4] 이상해진 날씨

날씨가 이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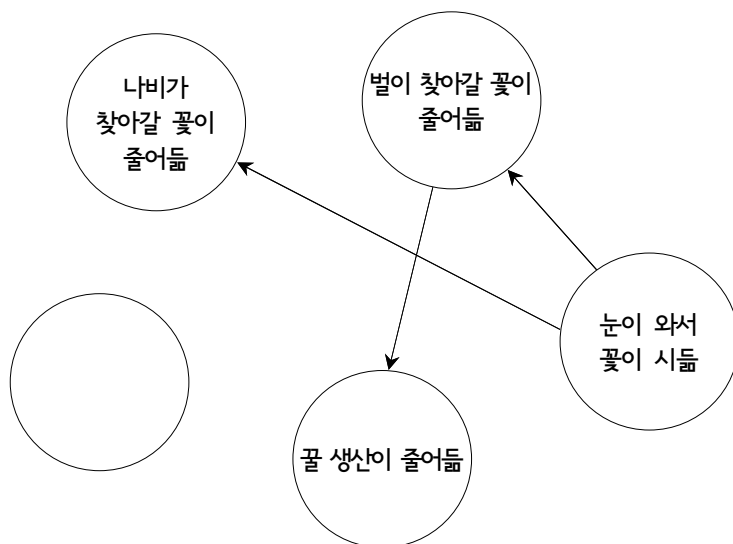
_____ 초등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이름 : _____

* 여러분은 최근 들어 날씨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어떤 때 날씨가 이상하다고 느끼는지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계절	난 이럴 때 '날씨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예 : 4월이 되어 나비가 날아다니는데 갑자기 눈이 내릴 때

* 날씨가 이상해지면 앞에서 적었던 단어들과 관련해 문제가 생기고, 연결된 다른 단어에도 연달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해서 각자 연쇄작용을 추측해 보자.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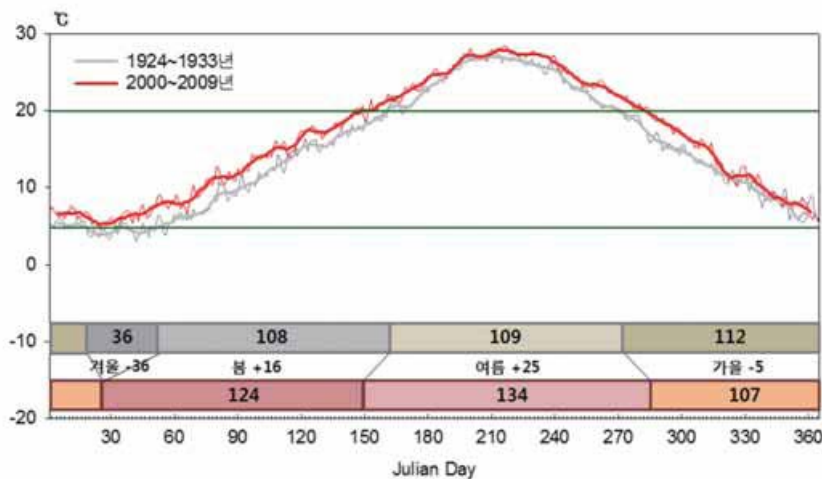




| 참고자료 |

[참고자료 1] 제주도 자연계절의 변화

제주도 자연계절의 변화



1924~1933년에 봄은 2월 22일, 여름은 6월 10일에 시작되었으나 기온의 상승으로 2000~2009년 사이에는 각각 1월 25일과 5월 29일에 시작되어 봄과 여름 시작일이 28일, 12일 앞당겨졌다. 같은 기간 동안 기온의 상승으로 가을 시작일은 13일 늦어졌으며, 2000~2009년에는 겨울에 해당하는 시기가 나타나지 않았다. 계절의 지속기간은 봄과 여름의 경우 각각 16일, 25일 길어졌으며, 가을과 겨울의 지속기간은 각각 5일과 36일 짧아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난화로 인해 연평균과 월평균 기온 이외에도 시간현상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6개 지점의 1920년대와 1990년대의 사계절 개시일과 종료 결과에 따르면, 지난 80년간 겨울철 개시일이 늦어지고 종료일은 빨라져서 겨울철이 22~49일, 봄철은 6~16일, 여름철 지속기간은 13~17일이 길어졌다고 한다.¹

- 제주도의 자연계절 변화가 우리의 일반적 예상과 일치하는가?
- 전국 평균과 제주도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¹ 출처 : 김성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추세, 기상청, 2009.

[참고자료 2] 기후변화와 급식

식재료 가격 급등...학교, 예산절감·질유지 대책 모색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발발과 한파 등 이상기후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7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서울시 학교보건진흥원의 '2011년 학교급식 식재료 시장조사 가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돼지 뒷다리의 1kg당 공급가는 이달 1일 기준 평균 1만5천5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 같은 시기(1kg당 8천550원)의 배에 가까운 가격이다.

닭고기 역시 1kg짜리 한 마리에 평균 1만900원으로 작년 2월초(8천125원)보다 23.3% 가량 올랐고, 쇠고기도 1등급 등심의 경우 1kg당 공급가가 7만5천원에 달했다. 전체 친환경 축산물 공급가는 닭고기와 돼지고기만 따졌을 때 작년보다 약 30% 가량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치가격도 kg당 평균 4천670원으로 작년(3천460원)보다 올랐고, 과일류와 수산물도 한파로 인한 작황 부진과 어획량 감소로 전반적으로 가격이 인상됐다.

진흥원은 "구제역과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과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세 등으로 신선식품지수가 1월보다 2.8%, 작년 2월에 비해서는 33.8%나 상승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무상급식 식단은?

원효초등학교의 경우 작년 3월 식단을 기준으로 단가를 뽑아본 결과 올해에도 같은 식단을 꾸밀 경우 비용이 평균 26.5% 더 든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학교 영양교사 조은주씨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신메뉴를 개발하고 생산지 직거래나 인근학교와의 공동구매 등을 통해 구입단가를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조씨는 "1인당 50~70g 넣던 고기를 30~40g으로 줄이는 대신 구절판처럼 고기에 각종 야채를 혼합하거나 너비아니 같이 고기는 10% 정도에 나머지는 두부를 넣는 식단을 개발해 단가를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급식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세가 상당수



학교로 하여금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포기하게 하는 등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영양교사는 “기상이변이 없다면 가격이 내리는 것이 정상이지만 최근의 종잡을 수 없는 날씨를 보면 낙관하기 힘들다”며 “모든 품목이 예년과 달리 폭등 장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기후 문제가 조금만 있어도 날씨에 민감한 친환경 농산물은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돼지고기 등 육류는 구제역 때문에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 경기도의 경우 상당수 학교가 식단에서 육류를 뺐다고 한다. 야채도 한파 등으로 비싸고, 남는 건 수산물인데 역시 가격이 뛰고 있어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려면 친환경 급식을 포기해야 할 형편이다”고 덧붙였다.

hwangch@yna.co.kr

[참고자료 3] 日 기상이변..도쿄 41년만에 때늦은 눈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0-04-17 09:39 | 최종수정 2010-04-17 17:51

농작물 피해로 야채값 폭등

겨울에도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거의 눈이 없는 일본 도쿄(東京)에 41년 만에 때늦은 눈이 쏟아지고 한파가 밀어닥치는 등 일본 중북부 전역이 이상 저온에 떨고 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16일과 17일에 걸쳐 도쿄를 비롯한 중북부 거의 전역에 눈과 진눈깨비가 몰아쳤고 기온도 0도 안팎으로 푹 떨어졌다.

수도 도쿄의 경우 이처럼 늦게 눈이 내린 것은 41년만에 처음이다.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도쿄는 겨울에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눈도 드물다.

일본의 중북부 전역에 눈이 내리고 기온이 영하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채소값 급등과 관광객 감소 등으로 피해가 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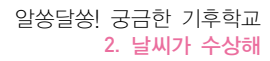
이상저온에 변덕스런 날씨로 야채 출하가 크게 감소하면서 지난 15일 현재 양배추와 상추, 파 등은 2배 안팎 가격이 폭등했고 주요 야채 14개 품목의 평균가격은 42%나 올랐다.

이처럼 야채가격이 폭등하자 농림수산성은 농업협동조합과 야채수급협의회를 비롯한 생산자 단체에 야채 출하를 앞당겨줄 것을 요청하는 등 긴급 대책에 나섰다.

하지만 이상저온과 날씨 불순에 따른 일조량 부족으로 작황이 부진해 야채 출하가 대폭 증가하기 어려워 채소값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봄 관광철을 맞아 변덕스런 날씨가 이어지면서 관광지, 외식산업 등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18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했다가 다음주 말께 다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A pink cartoon character with a round head, two small antennae, and a smiling face. It is holding a large pink pencil in its right hand. The character is standing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